

안녕하십니까.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.

[부동산 투기·탈세 대응]

- 최근 서울·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
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
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
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.
-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
불법·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
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습니다.

[향후 추진계획]

- 먼저,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
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
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
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
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-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
자금출처조사 전수와 대상을
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
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,
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
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- 검증 결과,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

법인가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경우
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습니다

‘부모찬스’로 취득한 경우
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겠습니다.

□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하여
강남4구,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
1,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.

○ ‘뚝뚝한 한 채’를 증여받고도
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
매매거래 위장, 저가양도 등
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
빈틈없이 과세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‘부담부증여’로 신고한 경우
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
실제 상환하고 있는지
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
별도 지원받고 있는건 아닌지
면밀히 점검해
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습니다.

- 다음, 신고가 거래취소 등
시장을 교란시키며
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
중개업소, 유튜버, 블로거 등
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습니다,
-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
불법·탈세 등 이상거래가
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- 아울러, 「부동산 탈세 신고센터」를 별도 설치하여
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겠습니다,
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와 연계하여
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

[마무리 말씀]

-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
보금자리이어야 하며,
불법·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
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.
-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
국세청이 할 수 있는
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.